

엮친 데 덮친 반도체株 우려 ↑... 소재株는 ‘반사이익’

경제전쟁 전면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韓 기업 소재 구매시 제약... 생산차질 전망 7월 반도체 수출액 전년비 28% ↓ 소재·장비는 ‘수혜’ 등 긍정적 평가

7월 반도체 수출 부진에 이어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이번 일본의 조치로 소재 구매에 제약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출 감소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심각한 악재가 더해진 것이어서 3분기 반도체업종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잇따른다.

다만 이번 일본 규제 조치가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74억6000만달러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 백색국가(화이트 국가) 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일본 백색국가(화이트 국가) 리스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이전 총 27개국 (8월2일 한국 제외 총 26개국)

백색국가 전략물자 분류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생화학무기 포함), 미사일, 첨단소재, 소재가공, 전자제품, 전자계산기, 통신, 센서, 항법장치, 해양 관련, 추진장치, 기타 미세품목 등 15개 항목 등 총 1천100여개

백색국가 제외시 영향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함

연말뉴스

로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했으며, 7월 대비로도 10.1% 줄었다. 메모리반도체 잠정수출은 4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가 감소해 지난 6월 33%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D램 잠정수출은 1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 감소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바닥의 골이 깊고도 넓다”며 “분기 첫 달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부진한 수준인데 2분기 첫 달이었던 4월과 비교해서도 11.5%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7월 반도체 고장거레가격들은 대부분 한자리수 후반 이상 하락세를 기록해 반도체업체의 실

적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반도체업종의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통관 관련 허가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구매 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일본 규제 장기화에 따른 생산차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반도체업체가 일본 핵심 소재에 대해 3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3개월 정도의 핵심 소재 재고를 보유한 만큼 재고 소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시기는 다음달 말 이후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도 보고서 통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3분기 말 정도에 명확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일본 규제에 대해 “새로운 허가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고 진행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삼성전자는 “감산은 없다”면서도 “생산라인 운용은 수요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D램·낸드플래시 감산을 공식 발표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로 반도체 재고 감소와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며, 이 경우 생산 차질은 있

겠지만 당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본의 규제가 반도체 소재·장비의 국산화를 견인할 것이며, 소재·장비업체가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관심주로 TEL·고쿠사이 일렉트릭(Kokusai Electric)의 경쟁사인 원익IPS, 일본 바라(Ebara)·시바우라(Shibaura)의 경쟁사인 케이씨텍, 일본 디스코 등의 경쟁사인 이오테크닉스 등을 들고 “수출규제 확대 이슈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업체인 SK머티리얼즈는 고순도 가스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고순도 과산화수소 전문업체인 한솔케미칼도 반도체 전구체를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국산화 시점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여름 비수기 옛말... 8월 3만 가구 쏟아진다

수도권서 2만1420가구 일반분양 경기 > 서울 > 대구 > 인천 > 부산 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8월에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난달보다 44%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청약 시스템 이관 등의 이슈로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최근 서울 청약리와 경기도 과천 재건축단지에서도 1순위 청약자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요자의 움직임도 주시할 대목이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3만739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 중 2만937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2만1420가구(72.9%), 지방은 7958가구(27.1%)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9982가구에서 2만1420가구로 증가했고 지방은 지난달 1만368가구에서 7958가구로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1만5909가구, 서울 3275가구, 대구 2556가구, 인천 2236가구, 부산 1927가구, 충북 1486가구, 전남 1140가구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서대문 센트럴 푸르지오’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예정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여주 교통푸르지오(가칭)’를 비롯해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일루미스테이트’, ‘루원시티 대성베르 힐Ⅱ 더 센트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과 ‘신천센트럴자이’, 부산 ‘남천 더샵 프

(8월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시공사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미정	1,945 (745)	롯데건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 센트럴 푸르지오	34~114	819 (334)	대우건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59~84	1,010	대림산업
경기 여주시 교통	여주 교통 푸르지오(예정)	84	571	대우건설
경기 부천시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39~84	3,724 (2,509)	현대건설 투산건설 코오롱글로벌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대성 베르 힐 더 센트로	84~170	1,059	디에스종합건설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미정	351	포스코건설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피스텔은 제외. 총 가구수()는 일반분양. /자료=각사



동대구 '신천센트럴자이' 조감도.

레스티지’ 등 지방광역시 위주로 주택이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원에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1945가구 중 7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거여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도 가깝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7블록에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59~84㎡, 1010가구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개발, 디자

인, 철학 등이 집약된 ‘C2 하우스(HOUSE)’가 적용되며, 대림산업만의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예정)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예정)에 따른 광역 교통망 수혜가 예상된다. 단지 200m 거리에 제2자유로(삼다리IC)가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부천시 계수·범박 재개발 구역에 ‘일루미스테이트’ 39~84㎡ 3724가구 중 25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로, 서해안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디에스종합건설은 인천 서구 가정동 주상복합4블록에 들어서는 ‘루원시티 대성베르 힐Ⅱ 더 센트로’ 아파트 84~170㎡ 1059가구, 오피스텔 24~36㎡ 120실 등 1179가구와 판매시설(1만 5308㎡)을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7호선 석남역 연장(2020년 예정) 인근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바이오 약재 여전... ‘추가 하락 불가피’

株라쿨라의 종목

NHN한국사이버결제·대양제지 지엔씨에너지·케이씨케미칼 코오롱글로벌 등 가치주 5종목 제시

“코오롱티슈진, 에이치엘비, 신라젠 등이 잇따라 약재를 발표하며 바이오 섹터 전반에 걸쳐 투자자 이탈 현상(엑소더스)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안 투자 자금이 쏠렸던 K바이오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한 수석 연구원은 4일 투자 건전성이 높은 중소형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주말 코스닥 지수는 615.7포인트를 기록하며 바이오 섹터의 대세 상승 초입이었던 2017년 3월 수준까지 되돌아갔다.

최 연구원은 “다가올 추석 명절과 연말 세금이슈 등으로 수급적인 활로가 빈약한 시점이어서 보수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믿을 것은 연기금이다. 실제 지난주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

최 연구원은 “연기금은 주가가 낮으면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청산가치가 담보되는 기업을 선호한다”며 연기금의 매매 스타일을 감안한 중소형 가치주 5종목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종목은 ‘NHN한국사이버결제’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로 PG 사업 부문의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진출한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효과도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앱스토어 이용금액은 4조4479억원이며, 이 중 애플 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인 1조원 가량이다.

최 연구원이 주목한 두 번째 종목은 공유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전국에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고시원이 고급화된 공유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 하우스렌탈 및 셰어하우스 시장에 특화된 동사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판지 업체인 ‘대양제지’도 과도하게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다. 골판지 시장은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 국내 택배 시장 확대, 플라스틱 제로 정책 시행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최 연구원은 “이달 안에 태립포장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매각 가격에 따라 골판지 업계 전반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통신의 사용 속도에 국내 데이터센터(IDC) 증축이 본격화되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엔씨에너지’도 관심 종목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아웃소싱 업체인 에쿠닉스, 디지털리얼티 등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비상발전기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원은 바이오연료 전문 업체인 ‘제이씨케미칼’에 주목했다.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 속에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친환경 연료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선박유나 항공유를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